

못 버틴다

광주 신생기업 5곳 중 4곳 7년도 안돼 문 닫아

광주·전남 지난해 신생기업 5만8544개...전년비 3.9% 줄어

광주 신생기업이 7년을 못 버티고 사업을 접는 비율이 3년 연속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신생기업 수는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광주 2만5587개·전남 3만2957개 등 5만8544개로, 1년 전보다 3.9%(-2400개) 감소했다.

광주 신생기업은 전년보다 4.2%(-1108개) 감소했고, 전남은 3.8%(-1292개) 줄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신생기업 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 이후 처음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역 신생기업 수는 지난 2014년 5만246개에서 이듬해 4만9791개로 감소한 뒤 5만1855개(2016년)→5만2043개(2017년)→5만2924개(2018년)→5만7858개(2019년)→6만944개(2020년) 등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던 부동산업 신생기업이 지난해 광주 1143개(-

12.5%)·전남 843개(-13.4%) 줄어들면서 전체 신생기업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광주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5%)과 사업 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6%), 숙박 및 음식점업(-5.6%) 등 신생기업 수가 전년보다 줄었다.

전남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3.0%)과 광업(-19.5%), 예술 서비스업(-13.0%), 정보통신업(-12.0%) 등 감소율이 컸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활동기업 수는 광주 18만1731개·전남 22만9285개로, 1년 전보다 각각 2.7%(4856개)·4.5%(9840개) 증가했다.

전국 활동기업 수는 전년보다 3.4%(23만5229개) 증가한 705만6079개로 집계됐다.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광주는 전년보다 0.5%포인트 내렸고, 전남은 소폭 상승했다.

2019년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비율(1년 생존율)은 광주 65.1%·전남 66.4%로 집계됐다.

신생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1년도 못 버티고 사업을 접은 셈이다.

이어 ▲2년 생존율은 광주 54.1%·전남 54.2% ▲3년 생존율 광주 41.7%·전남 44.0% ▲4년 생존율 광주 36.6%·전남 38.3% ▲5년 생존율 광주 31.7%·전남 35.0% ▲6년 생존율 광주 26.3%·전남 28.5% 등으로 갈수록 버티지 못하는 기업 비율이 늘었다.

특히 7년 생존율은 광주가 22.8%로, 2018년(19.7%), 2019년(21.2%) 등에 이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 7년 생존율은 21.6%(2018년), 22.0%(2019년), 24.3%(2020년) 등으로 늘었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은 광주 86개·전남 138개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광주는 2개(-2.3%), 전남은 27개(-16.4%) 줄어든 수치다. 20% 이상 고성장기업 가운데 사업자등록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광주 21개·전남 25개로, 전년보다 각각 4개(-16.0%)·19개(-43.2%) 급감했다.

전국 가젤기업(1385개) 가운데 지역 비중은 광주 1.5%·전남 1.8%에 불과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못 갚는다

집값 20% 떨어지면 대출자 5% 집 팔아도 빚 못 갚아

기준금리 2%p 상승엔 취약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증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지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집 등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같은 시점부터 기준금리가 2%포인트(p) 높아지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 잠재 리스크(위험)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과 동반한 가계·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비(非)은행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우선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보다 2.0%포인트 올 경우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 1.7%포인트(5.6→7.3%), 3.6%포인트(5.7→9.3%)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를 말한다.

같은 가정하에서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재무 건전성 분석에서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처분 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 가구의 비중(전체 대출 가구 기준)이 3.3%에서 4.9%로 뛰었다.

이정육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가격 격차폭 가능성 등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7~38% 정도 올랐는데, 올해 11월까지 10.4% 떨어졌기 때문에 급락이러기보다는 조정 국면"이라며 "아직 이 정도 하락은 금융기관이나 가계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상승률(37~38%)을 고려

할 때, 주택가격 15% 하락을 가정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에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됐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0.3%로 떨어지고, 주식·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각각 50%, 20% 하락하는 극심한(severe) 충격을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일부 보험·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이 규제 기준을 밑돌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시장금리 상승이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과 맞물려 금융 부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잠재리스크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며 "정책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100명 2만2000채 보유...공시가 3조 육박

지난해 1인당 평균 226채...주택가격 295억 달해

지난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2000여 채로, 1년 새 2000채 가까이 늘었다.

이들 주택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3조원에 육박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은 총 2만2582채를 소유했다.

1년 전 2만689채에서 1893채(9.1%)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1일 공시가격을 적용한 이들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9534억원으로 전년보다 4298억원(17.0%) 상승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26채를 보유하고, 주택 자산 가치는 평균 295억원 수준이었던 셈이다.

1년 전보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9채, 평

군 자산 가액은 43억원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증과, 대출규제 대폭 완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알뜰폰 망사용료 내린다

광주은행 "범죄 피해자에게 위로 되길"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매대가', 즉 기존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내린다. 도매대가가 내려갈수록 알뜰폰 사업자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 대가를 협의해왔다.

도매대가는 데이터나 음성 등을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와 수익 배분 방식으로 나뉘는데, 종량제는 주로 3G 요금제에, 수익 배분은 LTE나 5G 요금제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도매대가 가운데 종량제의 경우 데이터는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내리고,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낮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은행은 지난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광주 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금 전달식에는 조계준 광주은행 부행장과 이수권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보선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계준 부행장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곳곳에 나눔문화를 전파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56.73(+27.78)
↑ 코스닥	715.02(+9.32)
↓ 금리(국고채 3년)	3.567(-0.071)
↓ 환율(USD)	1276.20(-9.5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산타원정대 후원금'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정장 박래석)는 22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후원금 전달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이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어린이재단을 통해 광주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꿈 응원선물, 학습비정

기 지원, 난방비지원 등에 사용되며 선물은 크리스마스 당일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더욱 밝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금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2012년부터 지역사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산타원정대를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억5800만원을 전달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식료품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2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을 직접 전달하는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지역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광주시 서구 삼촌동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식료품 패키지 포장 작업을 한 뒤 각 세대로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는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을 비롯해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협동조합 이사장, 유길재 광주전남식품보호제판매협동조합 이사장, 최경태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

동조합 이사장, 임동주 광주식자재공급협동조합 이사장, 김형준 광주전남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전성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협동조합 이사장, 노종호 광주전남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회장은 "추운 날씨와 바쁜 연말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기 위해 참여해 주신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님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임직원들로 구성된 '희망산타'가 22일 광주시 광산구자원봉사센터에서 산타 선서를 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제공>

해양에너지, 급여 모아 '만미기금' 전달

(주)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이 22일 '2022 자봉이와 함께 희망산타'로 나서며 후원금 400만원을 광산구자원봉사센터에 전했다.

해양에너지 봉사단과 시민 자원봉사자 100명은 이날 광주 광산구자원봉사센터에서 산타 선서 행사를 열었다.

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은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만미기금' 400만원을 센터에 전했다. 지역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어린이,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 선물을 포함하며 나눔 활동을 했다.

오광호 해양에너지 경영마케팅본부장은 "추운 겨울 성탄절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의 마음이 조금씩 담겨있는 후원과 선물이란 더욱 뜻깊고, 앞으로도 이웃에 따뜻한 에너지를 지속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